

행복할 수 없는 그녀들의 목소리를 듣기*

– 박완서 소설 속 미군의 아내들

배 상 미**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4. ‘불행’을 가능성으로 개척해나가는 |
| 2. 미군 기지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 | 여성들의 실천 |
| 한 낙인에 대응하기 | 5. 서발턴을 재현하기, 서발턴의 목소 |
| 3. 섹슈얼리티 차별과 인종차별을 넘 | 리를 들리게 하기 |
| 어서기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박완서의 두 소설 『공항에서 만난 사람』(1978)과 『그 남자네 집』(2004)에 등장하는 미군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사라 아페드의 ‘행복론’을 통해 사회가 강요하는 행복의 방식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소설의 여성들은 사회가 미군 아내로서의, 혹은 성노동자로서의 그녀들에게 부여한 낙인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거나, 그녀들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 그 낙인의 무게

* 이 논문은 와세다대학 특정 과제 연구 조성비(과제 번호 2021C-649)에 의한 연구 성과의 일부이다.

** 와세다대학교 준교수

를 이겨나간다. 또한, 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에 대한 애착은 그녀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에 맞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 여성들은 다양한 출신과 인종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이면서 내면화한 인종차별을 지워나가고, 혼혈인종 자녀들이 보다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삶의 궤적과 방법은 행복 각본과는 달리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자의 시각에서 이 여성들을 관찰하는 박완서 소설의 시점은 서발턴으로서의 이 여성들의 성격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개척해나가는 다른 삶의 방식을 효과적으로 재현한다.

주제어 : 미군 아내, 성노동자, 낙인, 미군, 가족, 행복, 인종차별, 혼혈 인종인, 공항에서 만난 사람, 그 남자네 집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박완서의 두 소설 『공항에서 만난 사람』(1978)과 『그 남자네 집』(2004)을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에 재현된 미군 기지에서 미군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들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 후, 남한과 북한에 각각 정부가 세워진 이후, 미군은 남한(이하 한국)에 계속 주둔해왔다. 군사기지는 단순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군사 동맹을 유지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 기지가 위치한 지역에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군사기지가 지역 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논할 때에는 젠더 차이를 놓치지 않을 수 없다. 박완서의 소설에는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군사기지과 젠더의 관계만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 나아가 당시 군사기지 주변의 여성들에 대한 낙인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이 분석하는 두 소설만이 아니라, 다른 박완서의 소설들에도 군사기지에서 성노동을 했던, 혹은 미군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여성들이 종종 등장한다. 이를 두고 박완서가 미군 PX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경험을 소설화하면서 그녀들을 우연히 등장시켰다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소설에서 이 여성들은 데뷔작인 『나목』(1970)에서부터 후기작인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를 비롯하여 『그 남자네 집』(2004)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등장한다. 또한 그녀의 소설에서는 이 여성들이 미군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미군기지를 떠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미군과 연루되어 살아간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박완서가 이 여성들을 단순히 군사기지 주변의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해방 이후 미군 기지와 함께 등장하여 한국 현대사 안에서 한미관계의 변화 속에서 달라져가는 한국사회의 상징으로 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군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한국 여성들, 이라는 표현은 우선적으로 미군 기지촌의 성노동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은 미군 측에서도, 한국 정부 측에서도 모두 필요했던 존재였다.¹⁾ 미군은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미군들에게 배우자 동반 부임을 허가하지 않았고,²⁾ 이 방침으로 인한 미군들의 불만을 군사기지 주변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잠

1)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미군 기지 주변에는 미군을 상대하는 성산업 시설들과 성노동자들이 나타났고, 한국에서는 성노동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과 사람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여성 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性病 검사를 실시하여 이 여성들이 미군에게 보다 나은 성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캐서린 H.S. 문, 이정주 옮김,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50-51쪽) 한국정부가 미국 및 미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위해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기지촌 정화운동을 실시하던 1970년대에 한국정부에 의한 기지촌 성노동자 관리는 더욱 본격화되었다.(캐서린 H.S. 문, 위의 책, 170-183쪽)

2) 미국 정부는 한국에 파견되는 군인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위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 대부분의 미혼 군인들이 단신 부임했다. 또한, 이 군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배치되어 일했으므로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캐서린 H.S. 문, 위의 책, 65-66쪽)

재우고자 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서 주한 미군 감축 여부에 대해 논의할 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미군 기지 주변의 유흥업 종사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요청한 것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들에게 성노동자들이 필요불가결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렇듯 미군 기지 주변의 성노동자들은 ‘필요한’ 존재로 호명되었지만, 이들의 법적 및 사회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했다. 그녀들은 1963년 이래 존재했던 한국의 사회보험 중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녀들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육체와 미군들에 대한 그녀들의 태도만이 관리 대상이었을 뿐, 그녀들의 노동 조건이나 임금 등의 불합리는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³⁾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은 인터뷰나 연구 등은 이 여성들이 상시적으로 고용주와 고객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공권력이 개입하여 조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여성들은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성 윤리에 비추어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단일민족 신화와 한국의 민족주의적 남성성을 교란하는 반민족적인 집단일 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여성들은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 양가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들을 이용하는 두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이들의 존재를 가시화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났다. 미군 기지 주변에서 성노동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이 일을

3) 1970년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군 기지촌 주변의 환경을 증진시키려는 기지촌 정화운동 정책을 실시할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 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금지, 주기적인 성병검사를 가장 강조하였다. 기지촌 정화 운동은 철저하게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에 맞춰져 있었다. 정부는 이 여성들의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고, 대신 이 여성들에게 ‘애국자’가 되려면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야 한다고 주입하며, 그녀들을 이용하여 미군들 간의 인종갈등과 미군기지 내의 성병 확산을 막고자 했다.(캐서린 H.S. 문, 위의 책, 142-157쪽)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단체인 두레방이 1986년에 설립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비판적 연구자들에 의한 현장조사와 문헌연구들이 시작되었다.⁴⁾ 이 연구들은 그동안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미군 기지 주변의 성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이 여성들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관계, 그리고 각각의 정부가 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미군기지와 그 주변을 여성들을 착취하고 군사주의와 폭력적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공간으로서 분석하였다. 이후 페미니즘과 군사주의 및 전쟁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성노동자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군 기지촌에서 직접 일했던 여성들과의 인터뷰, 대화, 그리고 그들의 글쓰기를 담은 책도 간행되었다.⁵⁾ 최근에는 기지촌에서 성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제 노동이주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⁶⁾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서면 한국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기지촌 성노동자들의 재현을 분석하려는 흐름이 나타났다.⁷⁾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전까지 박완서 소설 안에서

4) 산드라 스티드반트·브렌다 스톨츠퍼스 엮음, 김윤아 옮김, 『그들만의 세상: 아시아의 미군과 매매춘』, 인겔, 2003(원본의 출간일자는 1993년); 캐서린 H.S. 문, 앞의 책(원본의 출간일자는 1997년); 김현숙, 『민족의 상징, '양공주'』, 일레인 H. 김·최정무 편저,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삼인, 2002 (원본의 출간일자는 1998년).

5) 대표적인 저서로는 김연자,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김정자, 김현선 엮음, 세움터 기획,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 2013; 이경빈·이은진·전민주, 『영미, 지니, 윤선: 양공주, 민족의 딸, 국가 폭력 피해자를 넘어서』, 서해문집, 2020 등이 있다.

6) Sallie Yea, *Trafficking Women in Korea: Filipina Migrant Entertainers*, Routledge, 2015; Hae Yeon Choo, *Decentering Citizenship: Gender, Labor, and Migrant Rights in South Kore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

7) 선구적인 연구로는 김연숙, 『'양공주'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1950-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3호, 여성연구소, 2003; 김은하, 『탈

종종 등장했지만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미군 기지촌의 성노동자들을 다루는 연구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한다.⁸⁾ 특히 김은하의 연구는 박완서의 『그 남자네 집』에 주목하여, 박완서의 소설이 공적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발턴인 기지촌 성노동자들을 그녀의 소설 속에 재현하여 이들에게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이란 무엇이었는지 질문한다. 차미령은 박완서, 강신재, 강석경의 소설이 서발턴 성노동자 여성들의 말해 질 수 없는 목소리를 들려지게 하려는 노력으로서 분석하면서, 박완서의 소설들이 미군 기지촌 주변의 여성들이 성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재현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이 여성들이 성노동자가 된 것은 개인적인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 연구들은 박완서의 소설들이 기지촌 성노동자들을 ‘서발턴’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시각에서 성노동자가 된 계기, 그리고 한국전쟁의 유산을 분석하기는 했으나, 박완서 소설이 사회가 외면한 이들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낙인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그녀들이 그녀들에게 적대적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재현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주류적인 한국 사회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불행’한 이 여성들의 삶의 궤적, 그리고 삶의 방식을 사라 아메드가 “행복”에 접근하는 방식을 따라 주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라 아메드는 『행복의 약속』에서 행복이 억압을 정당화한다고 주장

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제10호, 여성문학학회, 2003; 박선애, 「기지촌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2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등의 연구가 있다.

- 8) 김미덕, 「한국 문학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아메라시안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7; 김은하,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 점령지의 성적 경제와 여성 생존자의 기억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차미령, 「여성 서사 속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기억과 재현: 강신재·박완서·강석경 소설과 김정자 증언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58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한다. “행복은 발견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따라가야 할 것”⁹⁾이므로, 사회가 정해놓은 ‘행복의 길’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이들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이들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포기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다. 아메드는 이 행복의 역사에서 추방된 사람들인 페미니스트, 퀴어, 이주자들의 재현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행복의 길을 따르는 대신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려는 실천들을 발견한다. 이들은 비록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불행과 동거하는 법을 배우며, 정해진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대안적 방식으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한다.”¹⁰⁾ 사회가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의 프레임을 넘어, 우연발생의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는 것은 기존의 사회 프레임을 벗어나 혁명적인 상상과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순결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군 기지촌의 성노동자를 아메드의 논의에서 등장하는 불행과 동거하기, 그리고 우연발생의 가능성에서 살아가기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전형으로서 연구하겠다. 이를 통해 박완서의 소설의 성노동자들에게서 사회의 ‘불순분자’나 미국과 한국 정부 양측에 착취당한 ‘피해자’가 아닌 사회가 정해놓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나가려는 ‘개척자’로서의 면모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분석하는 주요 텍스트인 『공항에서 만난 사람』과 『그 남자네 집』은 각각 1인칭 관찰자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씌어져 있다. 전자는 서술자가 그녀의 전 직장 동료였던 성노동자 무대소를 관찰하는 서사가 주를 이루고, 후자는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가운데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그녀와 주변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는데

9) 사라 아메드, 김정혜 · 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불행한 자들을 위한 문화비평』, 후마니타스, 2021, 265쪽.

10) 사라 아메드, 위의 책, 401쪽.

특히 성노동자인 춘희의 경우 한국전쟁부터 2000년대 현대 한국사회를 재현하는 그녀의 소설 전체에 걸쳐 계속 등장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논문은 두 소설에서 서술자의 시선에서 재현되는 성노동자들의 서사에 주목하여, 이들이 그녀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한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미군 기지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낙인에 대응하기

박완서는 그녀의 소설에서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상시적으로 미군과 연애 및 성관계 할 기회와, 이 과정에서 성노동자로 전직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재현한다. 또한,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모두 미군을 상대로 성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시선들도 만연하다는 것 역시 언급한다. 이는 미군 기지에서 일한다면 미군과 어떤 식으로든 성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이는 이 여성의 성적 방종함은 물론 민족에 대한 존경도 저버린 것처럼 취급하는 당시 사회적 편견을 보여준다.¹¹⁾ 또한,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이러한 편견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한국사회의 규범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축되는 원인이 된다.

점잖은 집에서 누가 피약소 다니던 계집엘 데려가냐. 느들 존데 시집
가긴 아저녁에 틀렸어야.¹²⁾

이제 넌 반듯한 집 규수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지. 게다가 미군부대까지 다닌다고 해봐라. 양색시들도 남 듣기 좋게 미군부대 다닌다고 한다

11) 산드라 스테르반트·브렌다 스톨츠퍼스, 『하나의 이야기 속에 서로 다른 실마리: 해석적 소론』, 산드라 스테르반트·브렌다 스톨츠퍼스 엮음, 앞의 책, 398쪽.

12) 박완서, 『공향에서 만난 사람』,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2: 조그만 체험기』, 문학동네, 1999, 336쪽.

더라. 네 덕에 잘 먹고살면서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얼마나 뒤
통수가 따가웠는 줄 아냐?¹³⁾

이 두 인용문은 미군기지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일했다는 경력 자체가 여성들의 성노동 이력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소설 속 인물들의 입을 통해 전달한다. 이러한 낙인은 미군기지 주변의 여성들의 자기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이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들의 기대를 따라’ 성노동자가 되기도 한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위와 같은 낙인은 세 가지 편견과 서로 맞물려있다. 하나는 한국 여성과 미군 남성의 친밀한 관계는 반드시 거래를 전제하고 있으리라는 것, 다른 하나는 노동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적 유혹과 성폭력에 취약하여 미군기지에서 일하면 미군과 어떤 식으로는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것, 마지막으로 성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1950년대에 간행된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1958)과 강신재의 『해방촌 가는 길』(1957)은 미군과 연애했던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심지어는 그 편견을 내면화한 자기 자신에 의해 성노동자로 동일시되는지 잘 보여준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성노동자와 다르다는 것을 강박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결국 스스로 내면화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미군과 성관계한 자신은 미군을 고객으로 삼는 성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경멸한다. 그러나 박완서 소설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성노동자이든 그렇지 않은 그녀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녀들의 방식으로 그녀들의 존재 가치를 비하하려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맞선다.

13) 박완서, 『박완서 소설전집12: 그 남자네 집』. 세계사, 2012, 73쪽.

“내가 나 먹자고 이 짓 하는 줄 아느냐, 미국놈 먹여살리려고 이 짓한다. 네놈들은 우리 삼천만이 다 네놈들 덕본 걸로 알지만 한국사람 덕으로 굶어죽지 않고 사는 미국놈도 있단 말이야. 내가 바로 미국놈 먹여살리는 한국인이고 내 남편은 그 미국놈이다. 이렇게 호령을 하면서 빼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누가 믿어요?”¹⁴⁾

위 인용문은 『공항에서 만난 사람』에서 미군과 함께 살면서 PX의 물건을 밀매매하는 무대소가 위와 같이 미군들에게 호령하며 자신의 밀매매를 합리화한다는 것을 들은 그녀의 이웃이 이 소설의 서술자에게 무대소를 묘사하는 부분이다. 무대소는 서술자가 PX에서 점원으로 일할 당시 만난 비슷한 또래의 여성으로, 당시에는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PX의 물건을 밀반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PX에서 해고되고, 대신 기지촌의 성노동자들의 주거지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한다. 그 와중에 미군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자, 그와 결혼하여 다시 PX 물품을 밀매매한다. 그녀는 한국전쟁 전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으나, 남편은 징집되었다가 결국 전선에 투입되지 못하고 귀환하는 도중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삶은 한편으로는 불운하며 순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녀는 대체로 매우 쾌활하고 당당하며 자신의 삶에 애착을 보인다. 위 인용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 인용문을 전달하는 무대소의 이웃의 말처럼, 실제로 무대소가 그렇게 호령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대소는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을 모두 성노동자로 간주하는 사회의 편견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무대소는 자신의 밀매매를 “미국놈 먹여살리는 한국인”으로 표현하며 합리화한다. 무대소의 밀매매는 자신의 미군 남편을 위한 것이므로 PX의 물건들을 거래하여 얻은 수입은 미군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미군부대 내 유통되는 물건들은 미군들과 미군에게

14) 박완서, 『공항에서 만난 사람』,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2: 조그만 체험기』, 문학동네, 1999, 345쪽.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밀매매를 금지한다는 미군 측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대소는 미군 남편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냉전 국제정치 하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매개로 한 위계적인 권력 관계가 모든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개인들간의 관계가 마치 그들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간주하는 시도에 저항한다.

무대소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일반화하려는 사회적 편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맞섰다면, 『그 남자네 집』의 춘희는 미군을 상대하는 성노동자였고 미군의 아내라는 이유로 자신을 경멸하는 주변 한국 사람들의 모순을 그녀가 이상향으로 삼는 나라 ‘미국’과 대조하여 드러낸다. 그녀는 무대소와는 달리 성노동자였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동생들이 그녀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여 그녀를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자격지심에 시달린다. 일곱 명의 동생과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떠안고 PX에 사무원으로 취직한 춘희는 그녀의 월급이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모자라자 PX의 물건을 밀매매하고, 미군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동거한다. 밀매매가 원인이 되어 PX에서 해고당한 후에는 성노동자로 일하거나 미군과 동거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자금을 마련한다. 동거하던 미군 중 한 명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춘희는 미국에서도 동생들이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전력으로 돕는다.¹⁵⁾ 춘희가 미군기지에서 일하게 된 후로 춘희의 가족들이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춘희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이들은 춘희가 미군의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그녀를 멀

15)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보다 쉽게 이민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흔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으로 이주한 이들은 종종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자신들의 가족을 ‘미군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기도 했다.(여지연, 임옥희 옮김, 『기지촌의 그들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군인 아내들 이야기』, 삼인, 2007, 267-281쪽)

리하거나 경멸한다.

이 소설에서 ‘맥스웰 커피’는 한국에서 미국의 지위 변화를 상징한다. 춘희는 그녀에게 PX의 일자리를 소개해준 사람이자 그녀의 모친 친구의 며느리인 서술자를 방문할 때 맥스웰 커피를 들고 방문한다. 한국에서 커피를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던 회사가 없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의 맥스웰 커피는 밀매매되는 PX의 물건을 대표할 만큼 상당히 인기있었다.¹⁶⁾ ‘맥스웰 커피’는 춘희와 미군 혹은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의 상징이자, 한국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춘희가 선물이라면서 인스턴트커피를 한 병 내왔다. 귀한 맥스웰이었다. 이사 간 집에 갈 때는 팔각성냥 한 통이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때, 맥스웰 커피는 웬 떡이나 싶은 선물이었다.¹⁷⁾

내가 달가워하건 말건 춘희는 상복을 입은 조카딸에게 얼른 집에 뛰어가 쇼핑백에 든 걸 가져오라고 시켰다. (...) 집에 와서 미제 봉다리를 열어보니 비닐봉지에 든 인스턴트커피가 나왔다. 한 파운드도 넘을 것 같은 많은 양이었다. 어머니 장사 치르러 오면서 선물을 챙긴 성의가 고맙긴 해도 그걸 언제 다 먹나 싶어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¹⁸⁾

다행스럽게도 춘희는 아무런 선물도 안 사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 그녀는 녹차보다 그 믹스된 일회용 커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 마침 찐 맛에 백 개짜리 일회용에 열 개가 덩으로 붙은 큰 봉지를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걸 선물로 주어도 좋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그러면 고맙지, 하면서 순진하게 웃었다.¹⁹⁾

16) 1950년대와 1960년대 신문기사를 보면 맥스웰 커피는 대표적으로 암거래되는 PX물품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시장에 범람하는 부정 PX물품의 루트는?』, 『동아일보』, 1959년 6월 21일)

17) 박완서, 『박완서 소설전집12: 그 남자네 집』. 세계사, 2012, 249쪽.

18) 박완서, 위의 책, 276쪽.

19) 박완서, 위의 책, 276-277쪽.

각 인용문의 시기는 소설 속에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소설 속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첫 번째 인용문은 1950년대 후반, 두 번째 인용문은 1990년대 초반, 세 번째 인용문은 2000년대 초반이다. 1950년대 후반에는 춘희가 가져온 맥스웰 커피는 “웬 떡이나” 싶을 정도로 선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지만, 1990년대가 되면 어느새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 상황은 역전하여, 미국에 사는 춘희가 한국의 레시피로 가공된 커피를 기쁘게 받는다. 이후 춘희는 미국에서 동네 사람들과 이 커피를 나눠마시면서 이들로부터 한국의 커피맛에 대한 상찬을 듣는다. 이렇듯 커피는 한국과 미국의 평균 생활 수준의 격차가 매우 높던 195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 그 수준이 비등해졌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세 장면은 커피를 통해 성노동을 했던 자신의 이력에서 오는 열등감을 춘희가 스스로 다루는 방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춘희는 그녀의 이력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동경할만한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욕망에서 처음 미국 이민을 결정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성노동자였던 이상, 이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첫 번째 인용문에서 춘희가 서술자의 집을 떠난 후, 서술자가 그녀의 시모에게 춘희의 선물을 보였을 때, 시모는 “본디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이사온 집에 커피는. 싸가지 없는 년”²⁰⁾이라고 비하한다. 당시 커피 자체는 집들이 선물로 굉장한 가치가 있었지만, 선물한 사람이 ‘춘희’라는 이유만으로 ‘불쾌한 것’ 취급을 받아야 했다. 이렇듯 1950년대 후반의 그녀는 주변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1990년대가 되면 그녀의 친척들이 그녀 어머니의 장례를 일반적인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하면서까지 미국에서 오는 그녀가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성노동자였던 그녀의 이력은 미국에서조차 한국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여전히 강력한 낙인이지만, 그

20) 박완서, 위의 책, 256쪽.

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 시선도 조금씩 변한다. 그 중에서 춘희의 조카인 카멜리와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근데 그 카메리 년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명문대학에서도 장학금 받고 다닌다더니 무슨 박사를 하는지는 몰라도 한국전쟁 중에 섹스 산업이 한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나,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해서 논문을 준비한다나 봐.²¹⁾

이건 언니한테도 안 하던 애긴데 우리 아버지 민간인 복장으로 시골로 식량 구하러 가다가 국도에서 미군 비행기 기총소사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 (중략) 아무데나 묻어버린 아빠의 육신이 썩기도 전에 그 웬수 양키 한 놈 껴안고 한강에라도 뛰어들어야 하는 거 아냐. 그런 갈등 때문에 생전 불감증으로 살았던 애기를 카메리한테 했어. 처음 입밖에 내보는 소린데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 나를 안아주면서 이모, 사랑해, 사랑해, 그러더니 이모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전쟁과 가난이 인류 최대의 악이라고 하면서 같이 울어줬어.²²⁾

위 인용문을 통해 카멜리는 춘희가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카멜리는,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에 집중하던 때, 여성의 신체가 어떻게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었는지 경제학적으로 재해석²³⁾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카멜리는 춘희가 미군 기지촌에서 성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다른 조카들도 역시 춘희의 결혼 및 미국으로 오게 된 경위를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춘

21) 박완서, 위의 책, 284쪽.

22) 박완서, 위의 책, 285쪽.

23) 카멜리의 논문은 캐서린 문의 『동맹 속의 섹스』를 연상시킨다. 이 책은 미군기지 주변의 성노동자들의 노동을 한국의 경제성장의 측면보다 한국과 미국 간의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지만, 이 역시 이 여성들을 사회 구조와 한국의 현대사 안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회는 조카들을 불편해하는 대신 카멜리를 비롯한 다른 조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재정의하도록 도와주었는지 설명한다.

카멜리의 논문은 과거 춘희가 종사했던 일과 춘희와 같은 여성들이 수행한 노동의 대가로 일궈낸 성과에 대해 부정적하다는 추상적인 낙인 대신, 그것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춘희의 일을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그리고 당대의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한다. 춘희는 카멜리의 연구가 가진 이러한 측면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카멜리에게 자신이 성욕을 느낄 수 없는 이유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한국 현대사의 모순이 낳은 비극으로서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카멜리 역시 “전쟁과 가난”이라는 객관적이고 집단적인, 그리고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것의 이름으로 그 비극을 명명함으로써, 춘희가 부친의 비극에 눈감고 돈을 버는 것에 집중했다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

춘희가 어느새 백발이 된 2000년대 초에 와서야, 그녀는 자신이 왜 미국을 ‘좋은 나라’로 동경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카멜리의 논문과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미국은 춘희의 성노동 경험을 편견어린 어휘들로 비하하는 대신 학문적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나라, 춘희의 성노동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전쟁과 가난”이라는 그 당시 한국의 구조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춘희가 카멜리와의 대화, 카멜리의 연구를 상찬하면서 언급하는 “미국 좋은 나라야”의 ‘미국’은 실존하는 나라를 지칭하기보다, 그녀의 삶을 편견과 낙인 대신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3. 섹슈얼리티 차별과 인종차별을 넘어서기

『그 남자네 집』과 『공항에서 만난 사람』의 춘희와 무대소가 미군 기지촌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 부양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가족 윤리로 인해 이 두 사람과 그녀들에 의해 부양된 가족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낙인이 계속 따라다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두 사람들은 그녀들의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그녀들 역시 가족을 지키고자 한다.

『그 남자네 집』의 춘희가 미군 병사와 결혼하기 위해 매우 애를 쓴 이유는 그녀의 가족들을 모두 미국으로 이민시켜,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판매한 돈으로 살아간다는 주변의 낙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춘희 자신은 미국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생들에게 한국인들과 결혼하도록 강요한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혼할 땐 내가 부모 겸 큰누난데 두고만 볼 수 없잖아. 다 순종 한국 여자하고 결혼시켰어. 한국서 데려오기도 하고 여기서 찾아내기도 하고. 여기 피 섞인 여자라고 하고 싫어하는 녀석이 왜 없었겠어. 내가 결사반대했지 핑장치도 않았어. (...) 내가 저희들을 말할 때, 우리 집안에 몽땅 미국으로 왔지만 우리 씨가 잡종이 되는 건 못 참겠다, 이랬거든.²⁴⁾

춘희 본인이 미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동생들의 결혼에 간섭하는 춘희의 태도는 한편으로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춘희가 언제나 자신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왔던 것을 상기해보면, 춘희가 자신의 인종 간 결혼을 항상 ‘희생’으로 생각해왔으며, 그렇기에 그녀의 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희생’을 따르지

24) 박완서, 위의 책, 282쪽.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한다. 춘희가 이민가던 1950년대 후반만 해도 민족주의와 단일혈통주의가 강했던 한국사회에서 인종 간 결혼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²⁵⁾ 특히 혼혈인종 아동에 대한 혐오는 1950년대 한국이 본격적으로 국제 입양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계기가 되었다.²⁶⁾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간 결혼의 편견은 춘희가 동생들의 인종 간 결혼은 그녀가 동생들을 잘 부양하지 못한 증거라고 이해하게 된 배경이다. 이로 인해 그녀는 동생들에게 무조건 한국인들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춘희는 동생들 자녀들의 배우자들의 출신은 신경쓰지 않는다. 동생들의 자녀들이 비한국인과 결혼하면 “우리 씨가 잡종”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에 방관한 이유는 미국에서는 인종 혹은 종족 간 결혼에 대한 편견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약하고, 인종 간 결혼이 성노동자와 미군과의 결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춘희 동생들의 자녀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녀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국적’의 동생 자녀들을 그녀가 상상하는 ‘한국인’과 다르다고 이해한 것 역시 그 주요 원인일 것이다.

춘희는 미국에서 살면서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혹은 가지고 있었

25) 김은경, 「1950년대 ‘결혼허가신청서’를 통해 본 한인 여성과 미군의 결혼과 이주-미국의 이주통제정책과 타자의 ‘은밀한’ 연대」,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1호, 한국근현대사학회, 2019, 157-158쪽.

26) 1950년대 한국에서 혼혈인종 아동들은 어머니가 성노동자라고 전제되어,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 민족주의, 유교적 가족주의, 부계중심주의 등의 한국사회의 차별들이 서로 교차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웠다. 정부는 이 아동들이 겪는 심각한 차별을 알고 있었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해외입양이었다. 그러나 해외 입양과 관련된 어떤 법도 제정하지 않았고, 결국 민간단체 주도로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김아람,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제22호, 역사문제연구소, 2009, 51-66쪽) 민간단체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입양 시스템을 한국에 안착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했다. (Arissa Oh, *To Save the Children of Korea: The Cold War Origins of International Adop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pp.2-4.)

던 편견을 상당 부분 바꾸게 된다. 그 중 하나는 인종 간의 위계이다. 춘희가 처음 동거했던 미군은 “폴토리칸”²⁷⁾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필리핀계 미국인이다. 그녀는 자신의 미국 파트너를 서술자에게 소개할 때 그의 인종을 항상 언급하는데, 여기서 그녀가 미군들 사이의,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존재하는 인종 간 위계에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폴토리칸 주제에. 폴토리칸이니까 나 정도면 감지덕지할 줄 알았는데.”²⁸⁾

“필리핀 피가 섞인 양킨데 내가 살아본 양키 중에선 그중 하얘.”²⁹⁾

“언니 웃기는 거 있지. 1세들이 열심히 영어만 가르쳐서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2세들이 저희 새끼들한테는 한국말 가르치는 봄이야. 한국어 과외도 시키고. 방학 때 한국에 보내기도 하고. 3세 중엔 튀기도 많은데도 그래. 덕택에 내가 귀하게 불려 다닌다니까. 집에서 안 쓰니까 전혀 못 할 거 아냐. 그래서 나더러 한국말로 욕을 하든지 말든지 좀 놀아주라는 거야. 그중엔 순 백인하고 결혼한 2세들도 있는데, 백인 배우자도 대찬성이라니, 웃기잖아. 이놈의 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야.”³⁰⁾

위 두 인용문을 보면, 그녀가 피부색이 “하얀” 순으로 인종적 위계가

27) ‘폴토리칸’은 푸에르토리코인(Puerto Rican)을 지칭한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과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섬으로, 15세기 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처음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1898년에 일어난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자,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푸에르토리코를 넘겨 받았다. 이후 계속 미국령 자치주로 존속해왔고, 과거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는 강하지 않으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은아,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정체성 담론』,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제27권 제2호,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6, 173-200쪽 참고.

28) 박완서, 위의 책, 216쪽.

29) 박완서, 위의 책, 251쪽.

30) 박완서, 위의 책, 283쪽.

정해진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폴토리칸이었던 과거의 연인이 자신보다 얼굴 색이 어두으니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지금까지 동거해 본 미군 중 피부색이 가장 밝기 때문에 그에게 만족한다고 밝힌다. 춘희의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인종차별적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의 가족 구성원들이 들어가자 이 인종적 위계를 절대시하던 자신의 편견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기 시작한다.

마지막 인용문에서 춘희의 조카들이 조카 손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 그들의 유럽계 미국인 배우자들도 그런 조카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을 보며 춘희는 언어의 위계, 인종의 위계, 국가의 위계를 재고한다. 그녀가 한국의 미군 기지촌에서 일할 때에는 영어, 유럽계 미국인, 미국의 특권적 지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미국 안에서는 한국어도, 아시아계 미국인도, 한국도 항상 열등한 것 취급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출신의 가족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국인’으로서의 유산이 미국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경험을 한다. “이놈의 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야”라는 말 안에는 미국에서 한국인 이민자들의 유산과 정체성이 무시되지 않고 수용되는 것에 대한 그녀의 반가움과 기쁨이 드러난다. 이렇듯 그녀는 그녀를 항상 따라다녔던 미군의 성노동자라는 낙인을 가족들에게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안고 이민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편견과는 다른 미국 생활은 그녀의 인종차별적인 의식과 성노동자로서 가지고 있던 자격 지심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공항에서 만난 사람』의 무대소 역시 자신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한 책임감을 보인다. 그녀는 미군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다가, 남편의 사망 이후 미국 이민을 결심한다. 그녀가 이민을 결정한 이유는 자신의 아이들을 “사람 만들어야겠기에”라는 것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촌 주변의 혼혈 인종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실시한 유일한 정책이 ‘해외입양’이었고, 혼혈 인종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거나 이들이 주변화되는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책과 사회적 움직임은 없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지속되지 못하고³¹⁾ 사그라들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대소는 남편과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세 명의 혼혈 인종 아이를 양육해야 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무대소와 유사한 상황에 있던, 혼혈 인종의 자녀들을 홀로 키우는 여성들에게 자녀의 해외입양을 마치 유일한 선택지처럼 제시하던 분위기였으나, 무대소는 해외입양 대신 해외이주를 선택한다.

무대소의 선택은 당시 한국 사회가 ‘일반적’이라고 가정하던 홀로 혼혈 인종 아이들을 양육하는 한국인 모친이 따르는 선택지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는 이 소설의 서술자가 그녀를 묘사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얼토당토않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그녀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얼토당토않음”이라는 수식어는 그녀의 선택을 조롱하거나 의욕을 꺾으려는 의도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무에게도 전수되지 않을 고독한 욕을 유일한 밀천삼아 타국에서 고달프게 부대길 아줌마를 위해서 나는 우리의 욕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걸 축복스럽게 생각했다.³²⁾

31) 195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혼혈 인종 아이들에 대한 교육 요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실제 민간 차원에서 교육 기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부는 공교육 제도를 정비하면서 1962년에 서울에 시범적으로 혼혈 인종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영화국민학교를 마련하였으나, 인종 분리 교육이 오히려 차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등으로 인하여 결국 이 학교는 1964년에 폐교되어 일반 초등학교로 전환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김아람, 「배울 권리와 의무교육의 교차, 1950~60년대 전반 ‘혼혈’ 아동 교육」, 『역사비평』 제133호, 역사비평사, 2020, 326-349쪽.

32) 박완서, 『공향에서 만난 사람』,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2: 조그만 체험기』, 문학동네, 1999, 347쪽.

무대소는 과거에 서술자와 함께 미군 부대에서 일할 때부터 미국의 욕설 ‘son of bitch’를 그녀의 식으로 변용한 ‘쌍노메 베치’라는 욕설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공항에서 아이들과 출국을 준비하는 무대소는 자식들을 “상놈의 새끼”라고 부르며 미국에서 한국어 욕을 하며 살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렇게 무대소가 입국심사대로 들어간 이후 서술자는 다양한 한국어 욕들을 상기하며 그녀가 미국에서 어려울 때마다 한국 욕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기를 기원한다. 무대소를 전송하면서도 그녀의 미래를 축복하지 않고 웃을 일보다 욕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전제하는 서술자의 전송 방식은 한편으로 그녀가 무대소의 미국 적응 능력을 깔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무대소의 ‘욕’은 그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목격할 때마다, 분노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를 내고 이에 저항하는 수단이었다. 서술자의 전송은 무대소의 앞날을 낙담시키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무대소가 살아온 방식과, 그녀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꾸준하게 미래를 개척해나갈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대소가 자주 내뱉는 욕설인 “상놈의 새끼”와 “쌍노메 베치”는 무대소의 경계인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낸다. 미국의 기지촌에서 일했고, 한국어를 못하는 미군 남편과 생활했던 그녀는 한국에 살지만 미국인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생활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한국인’으로 보는 동시에 ‘미군의 아내’, ‘기지촌의 노동자’, 혹은 ‘혼혈아동의 모친’으로 인식하며, 그녀를 ‘한국인’과는 다른 ‘한국인’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경계인으로서의 그녀의 성격은 한국어 욕도 아니고 영어 욕도 아닌 “쌍노메 베치”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서술자 역시 무대소가 다양한 한국어 욕을 “밀친삼아”, 즉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바탕으로 삼기를 기원한다. ‘한민족’ 의식이 강한 한국에서 그녀는 ‘한국인’으로 살 수 없었지만, 다민족 및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는 어떤 ‘한국인’ 이민자이든 경계인일 수밖에 없기에 ‘한국인’으로 살 수 있다. 그녀

의 아이들 역시 한국에서는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차별은 존재할지언정 서류상으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서술자는 무대소의 가족이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역설을 알기 때문에 “풍부하고 다양”한 한국의 욕이 그녀의 ‘한국인’으로서의 미국살이에 중요한 ‘밀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대소만이 아니라 『그 남자네 집』의 춘희에게도 ‘욕’은 그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뒤의 장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논하겠다.

4. ‘불행’을 가능성으로 개척해나가는 여성들의 실천

박완서의 두 소설에 등장하는 무대소와 춘희는 어떤 측면에서는 ‘불행’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인다. 무대소는 혼혈인종의 외모를 한 그녀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말 그대로 “상놈의 새끼”의 위치, 즉 모욕적인 차별을 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더 이상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인인 남편은 사망하였고, 그녀도 아이들도 영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가는 그녀는 ‘불행해’ 보인다. 춘희 역시 이미 머리가 백발일 정도로 나이가 들었지만, 성노동자였다는 낙인은 그녀를 계속 따라다녀, 오늘날까지 한국인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한다. 이는 영어로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그녀에게 치명적으로 인간관계의 범위를 제약한다. 미국에서 영어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고, 한국인 공동체에서 외면당한 그녀는 역시 ‘불행해’ 보인다.

그러나 이 ‘불행해’ 보이는 것은 실상 무대소와 춘희에게 ‘불행’이 아닌 그녀들 삶에서 자주 마주쳤던 새로운 가능성,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아래의 두 인용문은 과거로 인해 부여된 낙인과 호의적이지 않은 생활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두 사람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이 상놈의 새끼들을 어떡허든 사람 만들어야겠기에.”

“아줌마, 쌍노메 베치는 어떡허구 자꾸 상놈의 새끼래.”

나는 그 마당에 엉뚱하게도 그녀의 말을 고쳐주려고 했다.

“아냐, 내가 미국만 가봐. 그까짓 헛 꼬부라진 미국 욕 안 한다구. 내 나라 말로 실컷 내 나라 욕하면서 살지.”

그녀는 미국 가는 목적이 실컷 욕이나 하는 데 있는 것처럼 희망찬 소리로 말했다. 나는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다.³³⁾

사가지고 갈 선물이 없어서 다시는 한국 못 가볼 것 같아. 한국 사람이 보고 신기해할 게 뭐 있어야 말이지. 앰병, 나 같은 거 눈에 안 보이는 데는 있겠지만. 말도 그래. 말 통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져 가. 그래서 슬퍼. 언니 없으면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막 지껄이겠어. 한국에 언니가 없으면 뭣하러 한국을 그리워하겠어. 아무것도 안 그리워하면 무슨 재미로 살겠수.³⁴⁾

『공향에서 만난 사람』의 서술자는 무대소가 항상 습관처럼 입에 달고 다니던 ‘쌍노메 베치’ 대신 ‘상놈의 새끼’를 외치는 것을 보고 낯설어한다. 무대소는 이런 변화를 미국 이민을 앞둔 그녀의 결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합리화한다. “그까짓 헛 꼬부라진 미국 욕 안 한다구”라는 무대소의 말에는, 그녀가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 남편과 살던 시절에 한국에서 예외적 존재인 미국인들을 위해 영어를 사용‘해줬지만’, 미국에 가면 이미 다수인 그들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제 반대로 그녀가 미국에서 예외적 존재가 되었으니, 오히려 미국인들이 그녀를 배려해야 할 차례다. 이러한 무대소의 태도는 “얼토당토 않음”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다 다시 무대소의 시각을 따라가보면, 그녀에게서 기존의 ‘이민자’의 상에 대한 거부를 찾을 수 있다. 이민자

33) 박완서, 위의 글.

34) 박완서, 『박완서 소설전집12: 그 남자네 집』. 세계사, 2012, 287쪽.

수용국은 이민자들에게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 나라의 사람들처럼’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³⁵⁾ 그러나 무대소는 미국에 가서 ‘미국인’처럼 살 생각을 하는 대신 “내 나라 말로 실컷 내 나라 욕”을 할 생각을 한다. 그녀에게 미국은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인간취급 하지 않는 한국을 떠나 오히려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미국을 ‘내 방식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상상하는 것은 이 소설의 배경인 1970년대 후반을 상상했을 때,³⁶⁾ 상당히 혁신적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 권력관계만이 아니라 그녀가 미군 기지촌에서 일했고, 남편도 미군이었다는 그녀 주변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이 설정은 상당히 전복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미군들을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했는지 잘 알고 있다. 서술자가 무대소와 함께 미군기지에 근무했던 1950년대 초반, 미군들은 PX의 냉장고가 몇 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고기들을 모두 폐기처분한다. PX의 한국인 고용인들이 그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자, 미군들은 폐기가 원칙이라며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데, 서술자는 이를 ‘미국식’을 고수하는 미군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다. 이러한 미군들의 방식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한 무대소는 그 관계를 역전하여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한다. 이렇게 그는 기존의 사회적 각본이 미국 이민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혀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대로 살겠다는 의

35) 사라 아메드, 앞의 책, 237쪽

36) 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 당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1975년의 신문기사를 보면, 미국 이민은 한국에서의 억압과 불편함으로부터의 탈출이기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제도에 자신을 끼워맞추며 ‘이방인’으로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견디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은 내 방식대로 살기 위한 도전이 아닌, 그 나라 방식을 배우는 이민자의 삶으로 이해되었다. (『해외이민의 허실 (5) 제도』, 『매일경제』, 1975년 4월 23일)

지를 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미국으로 떠난다.

『그 남자네 집』의 춘희도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 “엠병”이라는 욕설을 말끝마다 붙이는 버릇이 있다. 그녀는 “양키 서방하고 살다 보면 답답할 때”³⁷⁾ 이 욕설을 한 두 번 쓰다보니 어느새 그녀의 입버릇이 되었다. 이 “엠병”은 춘희의 기지촌 생활은 물론, 결혼과 미국생활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상징한다. “사가지고 갈 선물이 없어서” 한국에 못가겠다는 춘희의 말에서 그녀가 한국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미국에서 산다는 자부심으로 자신의 과거와 미국 생활의 불편함을 상기시키는 한국에 대해 느끼는 열등감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녀에게 열등감이 아닌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그녀를 말없이 지지해주던 서술자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그리운 공간이다. 이는 그녀에게 있어서 미국의 의미가 변화했기에 가능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춘희에게 미국은 더이상 한국보다 생활 수준이 높지도 않고,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국을 멀리서 그리워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리워하는 재미를 주는 나라이다. 그리움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감정이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증거로 간주되지만, 춘희는 이 그리움을 불만족이나 불행이 아닌, 오히려 살아가는 “재미”로 생각한다. 이제 ‘미국’은 그녀의 열등감을 채워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을 그리워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나라’가 된다.

욕설 사용은 일반적으로 점잖치 못하고 무례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두 소설에서 욕설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의사소통 해야하는 두 여성들의 피로를 해소하는 기능을 가진다. 무대소는 미군 부대에서 일하면서 미군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춘희는 미군과 동거하면서 언어 차이로 대화를 잘 주고받지 못하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설을 사용한다. 두 사람이 욕설을 습관화하게 된 배경은 다르지만, 둘 다 미군

37) 박완서, 앞의 책, 251쪽.

과의 의사소통하면서 욕설을 습관화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욕설은 그녀들의 영어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는 방식인 동시에, 자신들은 이 피로감에 무기력하게 방관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다.

위의 두 소설의 두 사람들은 모두 사회가 정해놓은 “올바른 방식”, 혹은 “행복한 방식”으로 살지 않지만, 제3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간다. 이들은 행복의 경로에 들어가는 대신, 그 경로 밖에서 살아가며,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리라는 기대 안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이들의 삶의 태도는 그녀들을 규정하는 ‘피해자’나 ‘문제 있는 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사라 아메드가 말한 “삶의 가능성을 긍정”³⁸⁾하는 방식이다.

5. 서발턴을 재현하기, 서발턴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기

이 논문에서는 박완서의 두 소설 『공항에서 만난 사람』과 『그 남자네 집』에 등장하는 미군 아내들을 사라 아메드가 ‘행복’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행복’의 각본을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는 삶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이 방법론으로 이 여성들이 미군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PX 물건을 밀매매한다는 이유로 부여된 낙인을 어떻게 무시하며 또 어떻게 그 부당함을 이해해나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가부장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유교적인 가족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이 여성들의 가족은 규범적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가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행복한 가족 각본을 배반하며 가족들로부터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또 그녀의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38)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99쪽.

삶을 살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박완서의 두 소설 『그 남자네 집』과 『공항에서 만난 사람』의 춘희와 무대소의 이야기는 그녀들이 직접 서술자가 되어, 혹은 그녀들의 시각으로 소개되지 않는다. 두 소설 모두 중산층이고, ‘성노동자’라는 혐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성 서술자의 시각에서 두 여성을 소개하고, 이 서술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만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소설들만이 아니라 다른 박완서의 소설들에서도 미군의 성노동자 혹은 미군의 아내들은 모두 그녀들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1인칭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특히 『공항에서 만난 사람』의 경우 무대소가 서사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녀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왜 그녀의 목소리는 1인칭 서술자의 시각에서만 전달되는가?

가야트리 스피박은 그녀의 잘 알려진 논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여성 서발턴들의 목소리는 “식민주의적 역사 기록의 대상으로서나 반란의 주체로서나, 젠더의 이데올로기적 구성은 남성 중심성을 유지”³⁹⁾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스피박이 여성 하위주체의 “의식이나 주체의 가정과 구성을”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그녀는 서발턴의 목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서발턴과 관련된 기록들을 그녀들의 입장,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입장에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부바네스와의 자살을 비록 그녀에게 맡겨진 정치 요인을 살해하는 임무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표시, 즉 “신뢰를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서, 그녀는 그 자신을 죽”⁴⁰⁾이고, 자살 방식 역시 전형적인 남편을 사별한 여성들이 취하는 것과 다른 것

39)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London: Macmillan Education, 1988, p.287

40) Ibid., p.308.

을 택하여 인도의 ‘사티’ 전통에도 반박을 가한다는 해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그녀의 자살은 기존에 독립운동가로서 영광스러운 각본, 그리고 여성으로서 영광스러운 각본 모두를 부정하고, 그녀의 독자적인 노선을 따른 것이다. 이 역시 그녀에 대한 ‘일반적인’ 후대의 평가를 생각해보았을 때 결코 행복한 선택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이후 독립운동과 인도의 전통에 대한 또 다른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완서의 소설들 역시 하층계급으로서 미군의 아내가 된 이 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대신, 그녀들에게 ‘호의적인 서술자’의 시각으로 그녀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다. 부바네스와 리처럼, 박완서 소설의 그녀들은 다른 이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행복해지는’ 선택 대신 ‘불행해지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류적 가치에서 떨어진 이들을 박완서의 소설은 ‘주체’로 재현하는 대신, 그녀들의 실천이 어떻게 예측하지 못한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보여준다. 박완서의 소설 속 서발턴들의 목소리의 의미는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그것의 가치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⁴²⁾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들이 서발턴인 이유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앞으로 ‘행복’의 각본으로부터 멀어지는 실천들을 적극적으로 독해하여 문학 속의 서발턴들의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들리게 하는 것은 여성 서발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연구자들의 몫이다.

41) Ibid., pp.308-9.

42) 김은하는 『그 남자네 집』의 춘희가 서술자에게 털어놓는 미군과 얹힌 그녀 가족의 서사를 “수치심을 일깨우는 또 다른 슬픔”이라고 명명한다. 춘희의 이야기는 사회를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 한국 사회의 복잡한 역사가 개인에게 야기한 비극으로 읽히기 쉬운 것이다. (김은하, 앞의 글, 335-336쪽)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박완서, 『박완서 소설전집12: 그 남자네 집』. 세계사, 2012.

_____, 『공항에서 만난 사람』,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2: 조그만 체험기』,
문학동네, 1999.

『해외이민의 허실 (5) 제도』, 『매일경제』, 1975년 4월 23일.

『시장에 범람하는 부정 PX물품의 루트는?』, 『동아일보』, 1959년 6월 21
일.

2. 참고논저

김아람, 『배울 권리와 의무교육의 교차, 1950~60년대 전반 ‘혼혈’ 아동
교육』, 『역사비평』 제133호, 역사비평사, 2020, 326-349쪽.

_____,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제13권 제2호, 역사문제연구소, 2009, 33-71쪽.

김은경, 『1950년대 ‘결혼허가신청서’를 통해 본 한인 여성과 미군의 결혼
과 이주-미국의 이주통제정책과 타자의 ‘은밀한’ 연대』, 『한국근
현대사연구』 제91호, 한국근현대사학회, 2019, 139-168쪽.

김은하,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 점령지의 성적 경제와 여
성 생존자의 기억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
학회, 2018, 313-341쪽.

이은아,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정체성 담론』, 『이베로아메
리카 연구』 제27권 제2호,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6,
173-200쪽.

차미령, 『여성 서사 속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기억과 재현: 강신재·박

- 완서·강석경 소설과 김정자 증언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58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7-43쪽.
- 캐서린 H.S. 문, 이정주 옮김,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 여지연, 임옥희 옮김,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군인 아내들 이야기』, 삼인, 2007,
- 산드라 스티드반트·브렌다 스톨츠퍼스 엮음, 김윤아 옮김, 『그들만의 세상: 아시아의 미군과 매매춘』, 잉걸, 2003.
-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불행한 자들을 위한 문화비평』, 후마니타스, 2021.
- Arissa Oh, *To Save the Children of Korea: The Cold War Origins of International Adop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Macmillan Education, 1988, pp.271-313.

<Abstract>

Listening to the Unhappy Women's Voices
– GI Brides in Park Wonsuh's Literature*

Bae, Sang-Mi**

This paper examines how the women who have romantic relationships with GIs cultivate their lives distant from the happiness norm in the society through Sara Ahmed's concept of 'happiness' in "A person who met at the Airport" and *The Man's House* by Park Wansuh. The GI brides in Park's literature confront the prejudice against their career working in a camptown. In addition, the brides chose to immigrate to the U.S. to protect their family members against the stigma against sex workers as well as their family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between the 1950s and the 1980s, which removed interracial children in South Korea by the international adoption. Further, their time living in the U.S. provides them a chance to reflect on their internalized racial hierarchy. The two women decide to choose the new possibilities which do not exist in the script of happiness in society. The third-person narrator's point of view in the literature to describe the GI brides effectively portrays their distinct living ways following as their location of the subaltern.

* This paper is a part of the outcome of research performed under a Waseda University Grant for Special Research Projects (Project number: 2021C-649).

** Waseda University

Key Words: GI Bride, Stigma, Family, Happiness, Racism, Interracial
Person, “A Person who Met at the Airport,” *The Man’s
House*

■ 논문접수 : 2021년 11월 26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06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4일